

#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조찬식,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Cho Chansick,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Dongduk Women's University

교육개혁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과 위상의 재정립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문헌정보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대학의 학제상의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위치를 조사·분석하고, 각 대학 문헌정보학의 교과를 중심으로 학문적 특성을 파악한 뒤, 교수진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들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갈 바를 도출하고 있다.

### 1. 서론

문헌정보학은 1957년 연세대학교에서 설립된 도서관학과에서 비롯되어 1985년 전남대학교에서부터 문헌정보학과로 개칭되었으며 하나의 학문체제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이러한 문헌정보학은 일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이용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과 실무적인 원리를 개발하고 재정립해오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학부제 도입 등에 따른 대학의 구조 변화는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위치와 특성 등의 재고를 필요로 할 만큼 크고 급격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문헌정보학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이해 및 연구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문헌정보학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대학의 학제구조를 바탕으로 현재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위치를 조사·분석하고,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의 교과편성(curriculum)을 근거로 학문적 특성을 살펴보고,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수진의 학문

적 배경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대학 속의 문헌정보학으로

1957년 Peabody 사범대학의 도움으로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개설되고 2년 뒤에 이화여대에서 도서관학이 정규학과로 설립된 이래 1960년대 중앙대와 성균관대가 설치됨으로 도서관학은 대학내 새로운 학문체제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6개 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추가로 설립되었고, 1980년도 한해만 8개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생겼으며 그 때까지 4개 대학에 석사과정, 2개 대학에 박사과정, 그리고 5개 전문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었으며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32개 4년제 대학에 설치된 문헌정보학은 1985년 전남대를 필두로 도서관학과에서 문헌정보학으로 개칭되었으며 이에 교과과정도 초기에 타자, 영어, 일어, 음악감상, 미술

감상 등의 과목에서 70년대 중반부터 초록, 색인, 정보처리, 정보검색의 과목이 개설되는 등 학문 내적인 발전과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 등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왔다.

교수진의 경우 1950년대에는 조선도서관학교 출신과 Peabody 사범대학의 교육 사절단 중심에서 1960년대에는 국내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가 교수와 연구를 담당하기에 이르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부서는 국내 박사과정 이수자와 외국 유학을 마친 사람들로 교수진이 구성되어서 명실공히 학문적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3. 학제 속의 문헌정보학

하나의 학문으로 문헌정보학은 주로 문과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의 학제의 하나의 학과로 소속되어 왔다. 그러나 1995년부터 실시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부제가

<표1> 학부제에 소속되어 있는 문헌정보학 전공의 경우

소속학부	동학부 내의 전공들
사회과학부	무역학, 사회학,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정치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광고홍보학, 아동학, 아동가족학, 사회사업학, 유아교육학, 언론정보학, 영상학, 국제관계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중어중문학, 노어노문학, 사학, 철학, 한문학, 사회학, 심리학
경상정보학부	경영학, 경제학, 신문방송학
정보과학부 (이과대학)	컴퓨터과학, 멀티미디어
인문사회과학부	영어영문학, 신학, 한국문학창작학, 지역개발학, 유아교육학

시행되면서 성격이 유사한 학문간 학과통합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문헌정보학도 1996년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3개교의 학부제 시행에 따라 학부로 소속되어 문헌정보학과 체제에서 문헌정보학전공 체제로 변신하게 되었다. 연이은 교육개혁의 진행과 대학종합평가 등 교육정책적 유도에 따라 32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가 14개의 학부제 속의 문헌정보학으로 체제개편을 하게 되었다.

현재 문헌정보학은 단과대학 내에 하나의 학과로 존재해 있기도 하고, 학부제에 편입되어 하나의 전공으로 남아 있기도 한 이원체제로 되어 있다. <표1>은 학부제에 소속되어 있는 문헌정보학 전공 및 같은 학부내

<표2> 단과대학 내의 학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경우

소속대학	인근학과들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법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지리학, 심리학, 경영학, 인류학, 부동산학, 사회복지학, 신문방송학, 산업복지학, 지역사회개발학, 국제관계학, 국제경영학, 경영경제학, 자치행정학
인문과학대학 (문과대학 인문계열 포함)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러시아어문학, 사학, 철학, 아동학, 대순종학, 문예창작학, 국민윤리학,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아랍지역학,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청소년학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일어일문학, 사학, 철학, 지리학,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중국학, 행정학, 국제관계학, 지방행정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가족복지학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문교육과, 영어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교육학과, 상업정보교육과, 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사회교육과, 가정교육과, 환경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음악교육과, 과학교육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과

의 전공들, <표2>는 학과 체제의 문헌정보학의 학제 및 인근 학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앞의 표들에서 보여지듯이 문헌정보학은 인문·사회과학내의 학문으로 존립해 왔으며 인근학과나 같은 학부내의 전공들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과학의 전 분야와 근접한 학제간의 학문으로 편제되어 왔다. 다만 학부제 시행이후 이과성향의 정보과학부에 위치한 경우가 있어 일면 학제간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일면 학문적 본질 또는 정체성에 대한 재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 4.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

문헌정보학은 도서관 중심으로 전개된 전통적인 도서관학을 바탕으로 하여 1960년대 이후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으로 출발한 정보학과 융합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자료, 정보, 지식의 효율적인 유통과 이용 그리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원리 연구 및 봉사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문헌정보학은 독자적인 학문분야이지만 인간과 지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문과학적 속성과, 인간의 정보활동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귀착되는 사회과학적인 속성,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로 조직, 관리하기 위한 기술영역적인 사연과학 또는 응용과학적인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학제적 성격의 학문이다.(구분영, 1996)

이에 문헌정보학이 개설된 대학의 교과목을 학문분야로 구분해 다음 <표3>과 같이 살펴보면, 문헌정보학은 문헌정보학의 고유 영역과 다른 학문분야의 측면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나 방향에 있어서 학제간의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한국정보관리학회, 1995) 그러나 이러한 학제간의 학문은 자칫 학문적 정체성(disciplinary identity)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문헌정보학의 많은 과목들이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연계를 맺는다는 것은 학문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문적 속성이 사변적으

로 흐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자격증이나 시험을 응시하는 일부 학문의 경우 필수이수과목을 정하여 그 학문적 본질을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문헌정보학의 경우 주어진 학점만 이수하면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자칫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표3> 교과과정을 통해 본  
문헌정보학의 학제적 성격

학문적 측면	해당교과목
사회과학적 측면	정보사회론, 정보커뮤니케이션론, 정보미디어의 역사, 도서관과 사회, 도서관인사 및 제정, 관공별도서관 경영정책론, 사회과학정보론
인문과학적 측면	고전자료의 이해, 고전자료강독, 서지학, 고서감정법, 일본자료강독, 문헌교감법, 영서특강, 한서강독, 도시 및 인쇄사, 한국전적해제, 중국전적해제, 출판커뮤니케이션, 인문과학정보론
자연(응용)과학적 측면	도서관전산화, 온라인탐색, 정보검색론, 정보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분석론, 정보처리론, 도서관시스템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론, 도서관시스템 자동화, 인터넷응용, 정보와 컴퓨터, 컴퓨터 정보처리, 웹기반 정보처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학기술정보론, 정보학원론,
문헌정보학적 측면	문헌정보학개론, 자료분류론, 자료편목론, 도서관문화사, 정보학개론, 독서지도론, 정보조사제공론, 정보자료수집론, 고서정리법, 자료조직연습, 도서관실습, 참고정보론, 색인초록론, 비도서자료 조직론, 정보센터론, 고급자료조직론, 주제별 참고서지 비교론, 참고문헌 이용자봉사론, 정보리터러시, 연속간행물관리론, 비교분류법, 정보와 도서관이용, 사무자료 관리, 주제서지론, 학교도서관 미이어센터론, 아동 및 청소년도서, 독서지도론,
학문 공통적 측면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 5. 교수진의 학문적 배경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학문체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진의 학문적 성향 및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제적 성격이 매우 짙은 문헌정보학의 경우 교수진의 학문적 배경이 문헌정보학의 성격 및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이다.

현재 4년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 또는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소속되어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진의 학문적 배경을 다음 <표 4>와 같이 살펴보면 30% 이상이 문헌정보학 외의 학문분야의 학사 소지자이며 석사의 경우 약 20%가 타 분야에서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문헌정보학이 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문헌정보학 교수진의 학문적 배경

학사	문헌정보학(79), 영어영문학(12), 교육학(4), 불어불문학(2), 독어독문학(2), 경영학(2), 경제학(1), 정치학(1), 행정학(1), 법학(1), 사학(1), 철학(1), 신학(1), 사회학(1), 정치외교학(1), 국문학(1), 가정학(1) 영어교육학(1), 국어교육학(1), 식품공학(1)
석사	문헌정보학(101), 사서교육학(6), 교육학(5), 전산학(3), 영어영문학(2), 경영학(1), 정치학(1), 사회학(1), 행정학(1), 신문방송학(1), 식품공학(1), 언어응용학(1)
박사	문헌정보학(96), 문학(2), 교육학(1), 지역사회개발학(1)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매우 다양한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학문적 배경의 다양성은 주제별 또는 학문적 전문가

를 교육키 위한 학제간 연구의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할 것이다.

## 6. 결론

지금까지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발전 배경을 살펴보고, 학제구조 속에서의 문헌정보학과 인근 관련학과를 살펴보고, 교과과정을 통하여 학문적 성격을 파악한 뒤, 교수진의 학문적 배경을 조사·분석하였다.

위 분석을 요약해 보면 첫째, 대학 내의 문헌정보학은 그 위치와 인식이 일정하지 않고, 특히 학부제 실시 이후 다분히 사변적인 판단에 의하여 학제 속에 편제되어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은 학제간의 학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제적 특성은 문헌정보학이 학문적 정체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셋째, 교수진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볼 때 좀 더 폭넓은 학제간의 연구, 특히 인문사회과학적 성격의 연구와 강의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이 나아가 갈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또는 법적 노력이 시급하다. 이는 교육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문헌정보학의 내재적 논리(internal logic)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서 문헌정보학의 표출화(externalization)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나 협회 중심의 상설기구 설치 등의 구조적 시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위의 학문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대학 내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과목을 규정하거나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학점기준 등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헌정보학은 전문적 학문(professional discipline)으로 졸업과 동시에 사서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학과 체제의 문헌정

보학과 학부 내의 문헌정보학 전공의 차이는 그 교과과정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적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객관 타당한 분석 및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문헌정보학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진의 학문적 배경이나 비율을 볼 때 문헌정보학은 인문·사회과학적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의 정보화는 문헌정보학에 전산 등을 비롯한 자연과학 또는 응용과학의 영향을 가져왔다. 그러나 전산 등의 과학적 분야는 정보의 경영이나 서지에 대한 운용이 중심이 되는 문헌정보학의 중요한 도구이나 그 본질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의 연구와 강의는 다양하게 접근되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의 구별이 선명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수진의 다양한 교육적 배경은 문헌정보학의 학제적 성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학문적 특성만이 문헌정보학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다분히 일방적인 학제적 연결일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문헌정보학이 다른 학문의 설명에 일조할 수 있다면 이는 양방향의 완성적인 학제적 연결이 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문헌정보학의 표출화에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의 연구와 강의는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넓어지는 이상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한 학문의 학제와 교과과정 그리고 교수진의 강의와 연구의 내용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 학문의 내부적 의사나 희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학내에 안주하는 학문은 그 존재 자체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은 학문적 특성과 본질을 분명히 하고 그 학문적 의의와 효과에 대한 외부의 이해와

인식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학, 경영학, 또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말하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란 모든 내부여건과 환경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별의미가 없으나, 급격한 내부의 변화나 환경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그 대상의 존립까지도 영향을 받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1978년 Oregon대학의 Graduate School of Library 폐쇄를 필두로 시작된 미국의 문헌정보학 경우, 경제적 위기를 맞은 모든 대학의 구조조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대학 당국으로부터의 이해와 communication을 얻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Paris, 1988). 이는 대학 내에서 문헌정보학의 필요성, 교육과 연구의 질, 학문적 필요성과 요구 등의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이며, 이러한 미국 문헌정보학의 경우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을 재고해야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구본영 (1996).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부제도 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2), 3-50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5).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 한국정보관리학회
- Paris, M. (1988). Library School Closing. Metuchen, NJ: The Scarecrow Press